

2022년 2-2

KIET 경제산업동향

2022. 2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2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2021년중 일본 성장률 1.7%, 유로존 5.2% 성장률 기록**
 - 미국은 올 1월 실물-체감지표 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중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7.0% 성장, 연간 전체 성장률은 5.7%
 - 일본은 지난해 4분기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증가에 힘입어 전기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전체로 1.7% 성장하고, 유로존은 역내 성장률이 4분기중 0.3%에 그친 반면에, 연간 전체로는 5.2%의 성장률을 기록
 - 중국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9%에 그치면서 둔화세를 나타낸 가운데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연속 인하(12.20일, 1.20일)
 - 달러화는 2월 들어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일) 이후에는 안전통화 수요 심리 강화로 강세
 - 유가는 2월 초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과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등의 여파로 한때 100달러 돌파
- **국내경기 : 2021년 성장률 4.0%, 1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8%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12월 전산업생산이 광공업생산 증가에도 서비스업생산 감소로 전월비 증가율이 1.8%로 하락, 소매판매는 2.0% 증가, 설비투자는 0.4% 감소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감소세, 2월 중순(2.11~2.24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동반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증가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2개월 연속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2월 들어 글로벌 금리와 동반 상승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한은의 금리 동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원/달러 환율은 2월 초 1,205원까지 돌파한 이후, 정부 당국의 경계 등으로 1,200원을 밑돌고,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1,200원 재돌파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전자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8% 증가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축소, 중공업과 경공업은 동반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8%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7.1% 증가, 전월비 기준 33.9% 증가

□ 고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4.4% 증가

○ 지난 1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농림·어업과 SOC·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모두 전월보다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2.9% → 4.4%, 2002.2월 이후 최고치)

□ 수출입 : 1월 수출 +15.2%, 수입 +35.4%, 무역수지 -48억 달러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이 35.4% 증가한 60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면서 1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 증가율(15.2%)

1. 해외경제

□ 미국 : 1월 경제지표 혼조, 4분기 성장률 7.0%, 2021년중 5.7% 성장

○ 올 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에, 체감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표들간의 혼조세를 반영. 지난 4분기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7.0%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간 전체로 5.7% 성장

- 산업생산은 광업(전월비 1.0%)과 유틸리티(9.9%)를 비롯해서 제조업 생산이 소폭이나마 증가(0.2%)하면서 전월비 증가 전환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부품(5.7%)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1.3월 이후 최대 폭 증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는 신규수주와 생산이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0.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하락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축소(+46.7만명)된 반면, 실업률이 7개월 만에 상승하고, 경기선행지수가 2020.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 지난해 4분기중 소비 증가와 재고 중심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7.0%로 높아지고, 연간 전체로 1984년 이후 최고치(5.7%)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3.4	5.7	6.7 (12.2)	2.3 (4.9)	7.0 (5.6)				
산업생산 (IT생산)	-7.2 (7.1)	5.5 (10.6)	1.6 (3.3)	0.8 (-1.1)	1.1 (1.2)	1.4 (0.4)	0.9 (0.6)	-0.1 (0.6)	1.4 (0.0)
내구재수주	-13.6	20.8	3.0	2.8	2.2	0.1	3.2	-0.7	-
소매판매	0.2	19.4	6.6	-0.5	2.3	1.8	0.7	-2.5	3.8
소비자물가	1.2	4.7	2.0	1.6	1.9	0.9	0.7	0.6	0.6
실업률(%)	8.1	5.4	5.9	5.1	4.2	4.6	4.2	3.9	4.0
무역수지(10억US\$)	-676.7	-859.1	-205.2	-223.1	-226.6	-66.5	-79.3	-80.7	-
ISM 제조업지수 ¹⁾	52.5	60.6	61.0	60.0	60.1	60.8	60.6	58.8	57.6
소비자신뢰지수 ²⁾	100.9	112.0	122.1	116.7	112.9	111.6	111.9	115.2	113.8
경기선행지수 ³⁾	106.1	115.4	114.6	117.2	119.2	118.3	119.2	120.0	119.6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2월 실물지표 감소, 4분기 1.3% 성장률, 2021년 1.7% 성장

- 지난해 12월중 생산과 소비가 각각 3개월과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무역수지도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 여파로 5개월 연속 적자. 지난해 4분기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 전환에 힘입어 전기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간 전체로는 1.7% 성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4.5	1.7	0.6	-0.7	1.3				
광공업생산	-10.6	5.8	1.2	-3.7	1.0	-5.4	1.8	7.0	-1.0
민간기계수주	-8.5	6.1	4.6	0.7	6.5	0.0	3.8	3.4	3.6
소매판매	-3.5	2.1	-2.1	1.2	1.9	2.8	1.0	1.3	-1.2
소비자물가	0.0	-0.2	-0.6	0.4	0.3	0.3	-0.1	0.3	0.1
실업률(%)	2.8	2.8	2.9	2.8	2.7	2.8	2.7	2.8	2.7
무역수지(10억엔)	480	-1,476	434	-837	-1,616	-630	-74	-958	-583
경기선행지수 ¹⁾	89.3	102.8	104.4	102.7	103.5	100.9	102.2	103.9	104.3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월 소비자물가 0.9% 상승, 인민은행 금리 2개월 연속 인하

- 올 1월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9% 상승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을 인하(12.6일)에 이어,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연속 인하(12.20일, 1.20일)하면서 경기 부양에 주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8.1	7.9	4.9	4.0				
산업생산	2.8	9.6	9.0	4.9	3.9	3.5	3.8	4.3	-
고정투자(누계기준)	2.9	4.9	12.6	7.3	4.9	6.1	5.2	4.9	-
소매판매	-3.9	12.5	14.1	5.1	3.5	4.9	3.9	1.7	-
소비자물가	2.5	0.9	1.1	0.8	1.8	1.5	2.3	1.5	0.9
수출(달러화기준)	3.6	29.9	30.6	24.2	23.0	26.9	21.7	20.9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2월 실물지표 혼조, 역대 4분기 0.3%, 2020년 5.2% 성장

- 지난해 12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소비가 5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5.0%). 지난해 4분기 역대 성장률은 전기비 0.3%, 연간 전체로 5.2% 성장률 기록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5	5.2	2.2	2.3	0.3				
산업생산	-7.7	7.8	-0.3	-0.6	-0.5	-0.7	-1.5	2.4	1.2
소매판매	-1.0	5.1	4.0	0.9	0.3	0.0	0.3	1.0	-3.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1.8	2.8	4.6	3.4	4.1	4.9	5.0
무역수지(10억유로)	234.0	123.2	37.4	27.0	-10.7	5.5	0.8	-1.8	-9.7
경기체감지수 ¹⁾	88.2	111.2	114.3	118.1	117.2	117.8	118.6	117.6	115.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 유가 강세

- 달러화는 2월 들어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전환 시사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일) 이후 안전통화 수요 심리 강화로 강세
- 유가는 2월 초 OPEC+ 산유국들의 점진적 증산 유지와 이란 핵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 등으로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충돌과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등으로 한때 100달러 돌파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24일
엔/달러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5.08	115.11	115.5
달러/유로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70	1.1235	1.1192
미 국채 (10년만기)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8	1.96
WTI유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7.0	88.2	93.4
두바이유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6.5	87.5	99.2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021년 실질GDP 4.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1.8%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설비투자가 전분기(전기비 -2.4%)에 이어 감소세(-0.6%)를 보인 반면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2분기와 3분기 만에 증가세(1.7%와 2.9%)를 보이고, 수출도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 증가율(4.3%)을 기록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0.9*	4.0**	6.0* (0.8*)	4.0* (0.3*)	4.1** (1.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3.6**	3.7* (3.6*)	3.3* (-0.2*)	6.3** (1.7**)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8.3**	12.8* (1.1*)	4.2* (-2.4*)	4.1**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1.5**	-1.2* (-2.3*)	-1.2* (-3.5*)	-1.7** (2.9**)	-	-	-	-
전산업생산지수	-1.2	-4.8*	7.2 (0.4)	3.9 (0.5)	5.5* (1.6*)	1.4 (1.1)	4.7 (-1.9)	5.4* (3.3*)	6.5* (1.8*)
광공업생산지수	-0.4	6.9*	12.7 (-1.2)	5.1 (0.5)	5.7* (1.0*)	-1.9 (-1.1)	4.5 (-2.9)	6.3* (5.3*)	6.2* (4.3*)
제조업생산지수	-0.3	7.1*	13.2 (-1.2)	5.1 (0.4)	6.0* (1.3*)	-2.0 (-1.3)	4.6 (-2.9)	6.4* (5.6*)	6.8* (4.8*)
서비스업생산지수	-2.0	4.3*	5.7 (1.7)	3.9 (0.9)	5.4* (1.4*)	3.4 (1.4)	5.0 (-0.4)	5.4* (2.1*)	5.8* (-0.4*)
소매판매액지수	-0.2	5.5*	4.4 (2.7)	5.0 (0.1)	6.2* (0.8*)	3.6 (2.4)	7.4 (0.2)	4.6* (-2.0*)	6.5* (2.0*)
설비투자지수	6.0	9.0*	12.7 (0.7)	5.8 (-2.5)	5.8* (-1.2*)	-5.3 (-2.1)	3.0 (-5.0)	9.2* (10.9*)	5.0* (-0.4*)
건설기성액	-4.1	-4.9*	-5.3 (-2.4)	-6.1 (-1.8)	-1.4* (4.6*)	-9.4 (2.3)	0.0 (-1.1)	-6.0* (1.9*)	1.5* (7.4*)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3	116.5*	116.6	117.1	117.8*	117.2	117.1*	117.7*	118.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7	100.9*	101.2	101.3	101.5*	101.2	101.0*	101.4*	102.1*
선행종합지수(2015=100)	119.5	127.1*	127.1	128.2	128.2*	128.2	128.1*	128.1*	128.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	102.1*	102.5	102.4	101.4*	102.1	101.7*	101.4*	101.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의 견조한 증가(4.3%)에도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감소 전환(-0.4%)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3.3% → 1.8%)
 - 광공업생산이 제조업에서 견조한 증가세(전월비 4.8%)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월비 4.3%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업생산은 다시 감소(-0.4%)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의 감소(-0.6%)에도 내구재(3.9%)와 비내구재(2.0%) 판매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비 2.0%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2.7%)의 증가에도 기계류(-1.3%)의 감소 영향으로 0.4% 감소
 - 동행종합지수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감소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0.8%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한 데 힘입어 전월비 0.2% 상승

□ 물가 : 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8.7% 상승

- 올 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0.3%)과 통신(0.0%)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2%)와 보건(1.1%), 음식·숙박(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6%)
- 지난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에서 전월비 상승폭이 둔화(2.6% → 1.7%)된 반면에, 공산품은 상승 전환(-0.6 → 0.9%)하고, 서비스도 2021.1월 이후 최대폭 상승(0.6%)하면서 전월비 0.9% 상승(전년동월비 8.7%)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0.5	2.5	2.5 (0.5)	2.6 (0.8)	3.5 (1.0)	2.6 (0.5)	2.4 (0.4)	3.2 (0.2)	3.8 (0.5)	3.7 (0.2)	3.6 (0.6)
근원물가	0.7	1.8	1.4 (0.6)	1.8 (0.5)	2.6 (0.9)	1.9 (0.3)	2.0 (0.2)	2.8 (0.3)	2.4 (0.2)	2.7 (0.4)	3.0 (0.5)
생산자물가	-0.5	6.4	6.4 (2.5)	7.4 (2.0)	9.3 (1.9)	7.4 (0.5)	7.6 (0.4)	9.1 (1.0)	9.8 (0.7)	9.0 (0.0)	8.7* (0.9*)
근원물가	-0.1	6.0*	6.0 (2.7)	7.3 (1.9)	8.4 (1.5)	7.3 (0.5)	7.5 (0.3)	8.3 (0.9)	8.7 (0.4)	8.1 (0.0)	7.8* (0.6*)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감소세

-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동반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증가

(21.12월 -2.8조원 → 22.1월 +13.3조원, 대기업 +4.0조원, 중소기업 +9.2조원)

- 대기업 대출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

- 중소기업대출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지속과 시설자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수요 영향으로 인해 상당폭 증가

- 회사채 발행은 투자기관들의 연초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순발행 전환

(21.12월 -0.8조원 → 22.1월 +2.3조원)

- CP·단기사채도 연말 일시상환분 재발행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전환

(21.12월 -3.0조원 → 22.1월 +5.8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 등을 중심으로 전월과 달리 큰 폭 확대

(21.12월 +0.6조원 → 22.1월 +13.0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 은행 원화대출	107.4	8.6	89.3	10.0	10.3	9.1	-2.8	13.3	1,079.0
(대 기업)	19.5	3.1	7.5	3.4	2.3	2.8	-1.7	4.0	183.4
(중소기업)	87.9	5.4	81.8	6.6	8.0	6.4	-1.0	9.2	895.6
<개인사업자>	47.5	1.6	37.0	2.5	2.6	2.7	1.1	2.1	425.1
■ 회사채 순발행	15.5	0.1	16.2	2.2	0.2	-0.2	-0.8	2.3	..
■ CP 순발행	2.3	6.3	4.1	3.3	-1.0	0.7	-3.0	5.8	38.5
■ 주식발행	11.0	0.0	28.9	1.7	1.1	2.3	0.6	13.0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된 영향에도,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2개월 연속 감소

(21.12월 -0.2조원 → 22.1월 -0.4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된 반면에, 집단대출 취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12월 -2.2조원 → 22.1월 -2.6조원)
-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감소 폭이 확대
(21.12월 +2.0조원 → 22.1월 +2.2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22.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가계대출	100.6	3.7	71.8	7.6	5.2	2.9	-0.2	-0.4	1,060.2
■ 주택담보대출	32.4	-0.6	14.7	2.6	0.5	0.5	-2.2	-2.6	278.1
■ 기타대출	68.3	4.3	56.9	5.0	4.7	2.4	2.0	2.2	781.0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2월 중순(2.11~2.24일) 금리 하락 &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2월 들어 글로벌 금리 상승세와 추경 이슈 부상 등의 영향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한은의 금리 동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세가 둔화된 이후 하락 전환
(2.11일 2.34% → 2.24일 2.23%, -0.12%p)
- 원/달러는 2월 초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으로 1,205원까지 돌파한 이후, 환율 단기 급등을 우려한 정부 당국의 경계 및 개입 등으로 1,200원을 밑돌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1,200원을 다시 돌파
(2.11일 1,198.5원 → 2.24일 1,202.4원, +3.9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022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1월	
국고채(3년)	0.98	1.13	1.45	1.59	2.10	1.80	1.80	2.19	2.23
회사채(3년,AA-)	2.21	2.06	1.97	2.05	2.57	2.37	2.42	2.77	2.83
CD(91일)	0.66	0.75	0.68	1.04	1.12	1.26	1.29	1.50	1.50
CP(91일)	1.09	1.00	0.97	1.18	1.24	1.49	1.56	1.64	1.64
원/달러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7.9	1,188.8	1,205.5	1,202.4
원/100엔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49.6	1,030.2	1,042.8	1,037.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6.8%, 전월비 +4.8%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전년동월비 -4.2%), 통신·방송장비(-4.8%), 1차금속(-1.0%)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31.5%), 자동차(8.0%), 기계장비(3.9%), 화학제품(4.7%)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8%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9.0%)에서 증가세가 전월(20.1%)보다 축소된 반면에, 중공업(7.6%)과 경공업(3.6%)은 증가세가 동반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1차금속(-1.1%) 등 소수 업종들을 제외하고 반도체(8.0%)를 비롯해서 자동차(7.3%), 전자부품(7.0%), 기계장비(4.1%), 화학제품(4.0%), 섬유제품(3.4%)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4.8%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9)는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전자부품과 금속가공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이 12월중 112.6%로 전월보다 2.9%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폭이 확대(1.9% → 3.3%,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증가폭 역시 크게 확대(9.3% → 11.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7%로 전월대비 3.5%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5.8%,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4.2%), 운수·창고(12.0%), 정보통신(7.3%), 숙박·음식점(38.4%), 전문·과학·기술서비스(4.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5.8%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2.2%)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운수·창고(-0.2%)와 숙박·음식점(-11.8%), 정보통신(-1.0%) 등 다수 업종에서 전월과 달리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재차 감소(-0.4%)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7.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3.9%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20	2021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3	113.6	113.7	111.8	119.3	113.9	118.5	125.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6.9	12.7	5.1	5.7	4.5	6.3	6.2	4.3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3	113.8	114.4	112.1	119.7	114.6	118.9	125.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3	7.1	13.2	5.1	6.0	4.6	6.4	6.8	4.8
섬 유	135.0	-10.5	6.4	25.0	4.6	3.8	0.1	4.9	6.2	3.4
화 학	883.8	-3.0	7.5	15.7	7.8	4.6	2.0	7.1	4.7	4.0
철 강	454.3	-6.3	6.0	13.3	12.0	1.8	2.4	3.0	-0.2	-1.9
반도체	1,285.6	22.7	29.7	27.2	33.9	34.2	37.7	33.9	31.5	8.0
컴퓨터, 주변장치	31.3	-7.9	-1.6	8.8	-6.5	-5.2	-12.0	3.7	-6.3	-2.1
통신, 방송장비	131.5	-11.3	21.1	41.7	18.7	4.2	9.2	8.8	-4.8	14.9
의료, 정밀, 광학	218.0	3.9	18.8	31.7	14.8	12.6	8.8	20.0	9.4	-3.6
기계, 장비	819.2	3.6	10.1	18.4	6.8	5.7	7.7	6.2	3.9	4.1
자동차	981.6	-10.0	4.6	22.5	-8.7	-3.3	-13.3	-3.9	8.0	7.3
조 선	206.3	8.6	-16.9	-17.6	-22.7	-11.7	-13.7	-12.4	-9.4	2.4
- 중 공 업	-	0.6	8.3	14.4	6.6	6.9	5.5	7.2	7.6	5.3
- 경 공 업	-	-4.0	1.8	7.4	-1.7	2.1	-0.1	2.7	3.6	2.3
- 제조업ICT	-	11.9	18.9	19.9	20.9	20.2	21.5	20.1	19.0	6.5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6.2	110.8	110.8	110.0	116.5	111.7	114.7	123.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	4.3	5.7	3.9	5.4	5.0	5.4	5.8	-0.4
도소매	211.3	-2.6	4.0	5.2	3.7	4.1	4.1	4.0	4.2	0.7
운수및창고	90.3	-14.2	6.5	11.0	6.9	10.6	9.8	9.9	12.0	-0.2
숙박및음식점	61.6	-18.5	1.4	1.5	-1.3	18.8	7.4	14.3	38.4	-11.8
정보통신	79.9	1.5	5.1	3.9	6.9	7.4	6.8	8.2	7.3	-1.0
금융및보험	140.9	14.0	8.5	9.7	6.3	3.7	6.9	4.8	-0.1	-0.4
부동산	31.8	5.5	0.8	5.7	0.4	0.1	2.9	1.2	-3.4	-2.1
전문·과학및기술	71.0	0.1	2.6	4.2	0.2	3.6	1.7	3.8	4.7	2.2
사업시설관리 등	47.7	-9.9	2.3	5.6	2.9	4.8	4.6	5.2	4.6	1.1
교 육	106.0	-4.7	1.9	3.0	1.8	2.5	1.4	2.5	3.5	-0.1
보건및사회복지	94.3	1.4	3.2	3.1	4.6	4.3	3.4	4.0	5.4	0.9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32.6	6.9	20.6	7.2	19.5	13.8	14.5	31.3	4.6
협회·수리및개인	32.1	-8.2	1.1	0.3	-0.4	5.4	5.1	5.3	5.7	-2.9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3.3	2.5	6.1	3.8	-0.2	-4.0	2.3	1.3	-0.4
- ICT서비스업	-	4.9	5.7	4.4	6.5	7.6	7.9	7.8	7.1	33.9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4.4% 증가

○ 1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모두 전월보다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2.9% → 4.4%, 2002.2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보다 확대(0.8% → 1.5%)
-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이 2020.3월 이후 최고치(2.7% → 7.6%)를 기록하고, SOC·기타서비스업도 2002.4월 이후 최고치(3.4% → 4.9%)
-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전월보다 더욱 확대(1.9% → 5.1%)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도 2019.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0.2% → 1.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취업자가 5개월 만에 증가(-5.0% → 4.1%)한 가운데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7.6% → 11.8%)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7% → 9.8%)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6.5% → 4.2%)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5.0% → 5.2%)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더욱 상승(4.3% → 6.1%, 2005.11월 이후 최고치)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6%로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6,904	27,273	27,467	27,645	27,611	27,683	27,741	27,795	27,298	26,953	
전년동기비	-0.8	1.4	2.3	2.1	2.4	2.5	2.4	2.0	2.9	4.4	
농림·어업	3.6	0.9	0.2	1.6	2.0	1.4	1.3	2.1	2.7	7.6	
제조업	-1.2	-0.2	0.1	-0.8	0.6	-0.8	-0.3	1.2	0.8	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2.9	2.8	2.9	3.2	3.0	2.2	3.4	4.9	
건설업	-0.2	3.7	7.0	4.5	1.7	2.7	2.5	0.8	1.9	5.1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4	-2.6	-1.9	-1.5	-1.7	-3.7	-0.2	1.4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5.2	6.9	8.3	8.3	9.0	8.5	7.3	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9	3.0	4.3	4.1	4.0	4.3	3.9	3.8	4.3	6.1	
실업률 (계절조정, %)	4.0	3.6	3.7	3.2	3.4	3.1	3.2	3.2	3.8	3.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월 수출 15.2% 증가, 수입 35.4% 증가, 무역수지 -48억 달러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5.4% 증가한 602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1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 증가율(15.2%)
- 수입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12개월 연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1.3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5.9%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19.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86.9% 증가한 약 7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5,125 (-5.5)	6,444 (25.7)	1,567 (42.1)	1,645 (26.5)	1,767 (24.6)	559 (16.9)	557 (24.2)	604 (31.9)	607 (18.3)	553 (15.2)
수입	4,676 (-7.1)	6,150 (31.5)	1,492 (37.7)	1,569 (37.5)	1,724 (39.4)	516 (31.1)	538 (37.7)	574 (43.6)	612 (37.1)	602 (35.4)
무역수지	449	294	75	76	44	43	18	30	-5	-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대 품목중 반도체·철강·일반기계 등 10개 품목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 반도체 : 높은 수준의 D램 가격 유지와 모바일 수요 증가, 파운드리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19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국내 공장들의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SUV·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지속에도 국내 기업들의 현지 생산 차종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주-인도간 시차와 전년동월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이 기술우위를 보유한 OLED 수요가 TV와 모바일용 하이엔드 제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무선통신기기** : 신제품 발매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효과 등에 힘입어 특히 중국 등지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탄 가격에 따른 단가 상승과 전방산업들(건설·기계 등)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글로벌 의류 수요 회복으로 아세안·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단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단가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글로벌 에너지 수요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동반 상승세 속에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중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공작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 실행 등에 힘입어 특히 미국·EU·중남미 등지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선호와 신규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특수 등에 힘입어 미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

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의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SSD 성장세 지속과 차세대 SSD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3.1	24.2	74.8	6.5	4.9	-6.1	-4.7	3.3	17.3	2.3
자동차부품	-17.3	22.2	123.1	14.8	-1.4	-5.1	-1.2	-2.2	-1.0	14.2
선박류	-2.0	16.4	11.9	-1.4	22.9	-40.4	6.4	237.7	-49.0	-77.9
일반기계	-8.9	10.8	21.2	15.6	9.9	7.7	12.6	11.6	6.1	13.9
철 강	-14.5	37.0	50.4	45.1	47.7	41.6	48.5	45.7	48.9	49.9
석유화학	-16.4	54.8	80.3	64.1	54.1	52.3	69.2	62.9	34.2	40.2
석유제품	-40.6	57.7	112.6	71.6	113.1	84.8	148.1	121.7	79.4	89.1
섬 유	-13.3	14.0	46.0	9.9	16.8	-3.8	21.7	16.9	12.6	22.2
가 전	0.7	24.0	66.5	11.7	15.3	-4.1	13.7	20.9	11.6	19.7
무선통신기기	-6.4	22.9	38.5	25.7	12.1	19.6	15.5	16.4	4.8	1.9
컴퓨터	57.2	25.2	8.9	34.0	56.5	49.4	52.6	73.5	44.7	49.3
반도체	5.6	29.0	29.7	36.3	34.6	28.2	28.8	40.1	35.1	24.2
디스플레이	-12.2	18.9	36.0	25.2	5.8	17.3	5.3	10.4	2.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2.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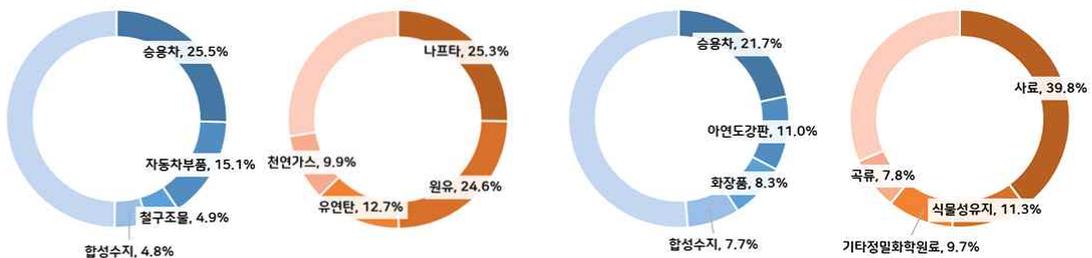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개요**

- 러시아는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영구 배제 및 러시아 주변에 대한 나토 군사력 미배치를 요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안보 보장 요구엔 정치·경제적 동인이 작용
 - (정치) 우크라이나를 지리·외교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러시아의 위상 과시와 내부 지지를 제고를 도모
 - (경제)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 3대 곡창 지대이면서 지하자원이 풍부
- 미국과 EU는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

□ **한-러시아, 한-우크라이나 교역 동향**

- 2021년 기준 러시아는 10위, 우크라이나는 68위 교역대상국
 - 전체 교역중 對러시아 교역 비중 순위 : 21위('00년) → 10위('21년) 상승
- (러시아)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등이 對러시아 수출의 절반,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이 수입의 70% 이상 차지
- (우크라이나) 승용차, 아연도강판, 화장품, 합성수지 등이 對우크라이나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료, 식물성유지, 기타정밀화학원료, 곡류 등 1차산품 및 원료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

〈對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2021년)〉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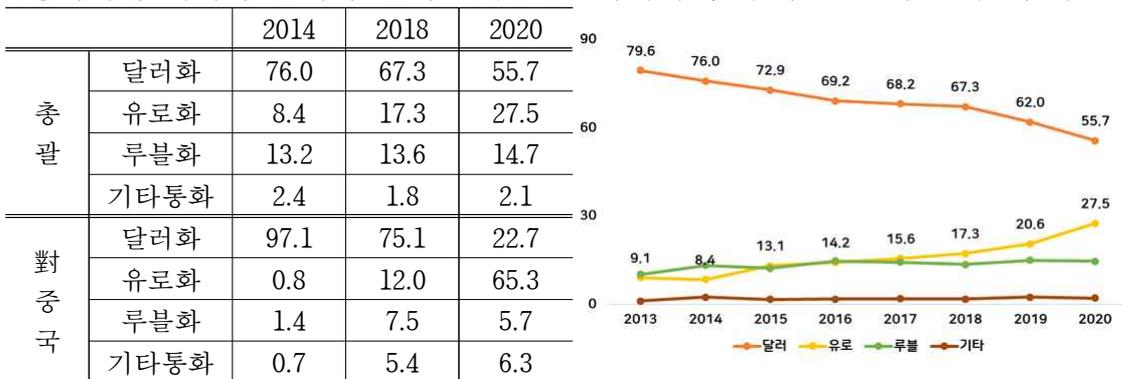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MT1 4단위,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교역 차질이 예상
 - 지난 2014년 크림 위기로 서방의 제재가 시행되었을 당시에도 승용차와 컬러TV, 타이어 등 對러시아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입 부담이 가중
 - 브렌트유(달러/배럴) : 68.9('21년 12월 초) → 93.3(2.15일), 35.4% 상승
-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들의 수급 차질이 발생 가능
 -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는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음.
 -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70% 이상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은 약 50개 내외로서 양국 전체 수입 품목 수(2,418개)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
- 현지 진출 기업들의 부품 조달, 무역 대금결제, 환변동성 불확실성 확대
 - SWIFT 결제망 배제시 대금결제 지연·중단, 우회 결제 등 손실 불가피
 - 러시아는 자체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脫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

<경제제재 시기와 달러화 결제 비중(%)><러시아의 통화별 결제 비중 추이(%)>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기업들은 달러화 결제 중단과 수출 통제 가능성 대비, 수출 기업은 바이어 신용조사와 외상·추심 축소, 진출 기업은 루블화 자산 축소 및 자금 경색 가능성 대비에 나서는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부는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역보험·거래선 다변화 지원 등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 대응에도 주력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2.28)	(3.1)	(3.2)	(3.3)	(3.4)
 1월 산업생산(잠)  1월 소매판매(잠)	 2월 ISM 제조업지수  2월 수출입통계	 2월 소비자물가(예)  1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매판매  1월 실업률  2월 ISM 서비스업지수  21.4분기 실질GDP (잠정치)	 1월 실업률  2월 고용보고서  2월 소비자물가
(3.7)	(3.8)	(3.9)	(3.10)	(3.11)
 1-2월 수출입통계	 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1월 무역수지	 2월 소비자물가  21.4분기 실질GDP (수정치)	 ECB 통화정책회의  2월 소비자물가	
(3.14)	(3.15)	(3.16)	(3.17)	(3.18)
 1월 산업생산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연준 FOMC(-3.16일)	 2월 무역수지(잠)  1월 산업생산(수)  1월 소매판매(수)  2월 소매판매  2월 고용동향	 1월 기계수주  BOJ 통화정책회의  2월 소비자물가(수)  2월 산업생산	 2월 소비자물가  1월 수출입통계  2월 경기선행지수
(3.21)	(3.22)	(3.23)	(3.24)	(3.25)
		 1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2월 생산자물가	 2월 내구재수주(잠)	
(3.28)	(3.29)	(3.30)	(3.31)	(4.1)
	 2월 실업률  3월 소비자신뢰지수  3월 소비자동향조사	 2월 무역수지(수)  2월 소매판매(잠)  2월 경제체감지수  21.4분기 실질GDP (수정치)	 2월 산업생산(잠)  2월 실업률  2월 개인소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월 산업활동동향	 3월 소비자물가(예)  3월 ISM 제조업지수  3월 고용보고서  3월 수출입통계